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BK21 사업 방향과 과제

박 남 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업이 훗날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학자는 물론 교육부도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것' 인가를 생각하며 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방의 조그만 교육대학 교수이다. 그동안 온 나라가 BK21에 대해 떠들어대도, 선후배 교수와 친구 교수들이 만나 자기 학교의 BK21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도, 필자에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번에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계속 망설이면서 그동안 이 분야 연구를 해 왔던 사람을 대신 추천했던 이유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를 해왔던 사람의 관점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BK21 사업 방향과 과제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등교육정책을 진공했던 필자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겨우 마음을 먹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BK21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지원했고, 향후 2012년까지 2조 3백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BK21 사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 글이 해야 할 역할은 동 사업이 훗날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BK21 사업의 격랑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자들이 가야할 길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차 BK21 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동 사업의 목적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바

1.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업 개요

제2차 BK21 사업은 크게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국제 수준의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사업(전국 단위) 등의 3가지로 나뉜다. 인문사회 분야 사업으로는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과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문사회 분야와 핵심 사업 분야의 일부, 그리고 국제 수준의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사업 중 경영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총 2,900억 원의 예산 중 인문사회 관련 분야 사업비는 약 29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대학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50억 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240억 원 정도가 인문사회 분야(예체능 영역 포함)에

〈표 1〉 제2차 BK21 사업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 관련 사업

사업 구분	인문사회 해당 분야	구체 영역	세부 지원 분야	2006년도 인문사회 분야 예산*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인문 사회	인문 영역	-	190억 원
		사회 영역		
		학제간 융합 영역 (디자인·영상 분야 포함)	디자인·영상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학, 인력 계획, 고등교육정책, 한국학, 국제지역연구, 인지과학, 문화학 등 2개 이상의 학문 분야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력 양성 분야	
	핵심 사업	인문 영역	문학, 사학, 철학 등 전 분야	
		사회 영역	법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등 전 분야	
		학제간 연구 영역	미래학, HRD(인적자원정책), 국제지역학, 고등교육정책 등	
		예체능 영역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인문사회	전국 단위의 인문사회 분야, 핵심 사업 영역과 동일	전국 단위의 세부 지원 분야와 동일	50억 원
	핵심 사업			
국제 수준의 고급 전문 서비스인력 양성 사업	경영전문 대학원	경영학	-	50억 원

*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수치로 추정치임.

** BK21사업단 제공 자료(<http://www.bk21.or.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하에서는 동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표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 목적은 21세기 선진형 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고급 연구인력 양성, 인문·사회·예술 등 문화 가치 창출 분야의 창의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 소규모 우수 연구자 집단의 지원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핵심 사업의 인문사회 분야 목표), 국제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Global standard에 맞는 경영학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전문서비스 분야 중 경영학 분야) 등이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 등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국제지역학을 지원 분야에 포함시키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학 분야를 포함시켰으며,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이지만 전문 연구기관 하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등교육정책 등을 학제간 연구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 내용도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있다. 당연하겠지만 세부 지원 분야는 예시 분야이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신청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열거된 것과 차별 없이 지원받게 되길 기대한다.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 목적은
21세기 선진형 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고급 연구인력 양성,
인문·사회·예술 등 문화 가치
창출 분야의 창의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 소규모 우수 연구자
집단의 지원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국제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경영학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상에 열거된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더하여 다음이 고려되길 기대한다. 동 사업의 목적에는 우리나라의 인문사회 분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 가정은 타당하면서도 타당하지 않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양극화는 아주 심각하다. 영어권 국가가 이론 생산국가의 역할을 하고 비영어권 국가는 이론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학문 발달 자체가 뒤떨어진 데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비영어권 국가 연구자의 연구력이 영어권 국가 연구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가 영어로 발표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현저히 줄고 인용도 잘 되지 않기 때문인 부분은 존재한다.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물 중

에도 국제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물이 아주 많다. 또한 현재 학자의 연구물만이 아니라 과거 학자의 연구물 중에는 더욱 그러한 결과물이 많다. 따라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온 것을 세계에 알려서 이론 생산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의 이론을 풍부하게 하여 인류의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 학자들의 이미 발표된 연구물과 과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새롭게 하여 국제학술지에 실거나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업을 BK21 사업에서 해야 한다. 학문선진국으로

그리고 이론 생산국가로 인정받을 때 인문사회 분야에도 더 많은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몰려 올 것이다.

Ⅲ.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언

1. 사업단 구성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 구성은 단일대학만 주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과의 상당수는 특정 영역 교수를 1인씩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제로 혹은 융합 영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영역의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분야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간 컨소시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가 인문사회 분야이다.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상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는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다. 인력 풀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성취해 놓은 것이 전체의 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기대한다.

2. 선정 평가 항목과 기준

BK21 사업 선정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비중은 동 사업 목표에 비추어 타당하게 선정된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은 명시되지 않고 있

다. 그동안 다양한 평가에 참여해 본 경험에 따르면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정 결과에 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 가령 '취업률 및 취업목표 및 지원 계획의 우수성'이라는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짧은 기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너무 많은 신청서를 한꺼번에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가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평가가 부실해지고, 이는 사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각 지표의 평가 기준을 최대한 양화시키고, 양적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는 담당 부서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직접 점수화하는 것이다. 그 경우 평가자는 극히 일부 질적 기준에 대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최근 3년간 학부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개혁 실적에 대해 최대 7점까지 가점 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선도 대학에 대해 가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학구조개혁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대학구조개혁 선도 대학에 대해 가점을 준다는 것은 약간 다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구조개혁 선도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주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대학들에 가점을 주게 될 경우 동 대학 소속 사업단은 거의

선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막기 위해 전국단위 사업(1,975억 원)의 1/3이 조금 넘는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 사업(735억 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지방 대학의 사업단이 전국단위 사업에 지원할 경우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결과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다시 집중 지원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우수한 대학이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 선도 대학으로 선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다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단을 선정할 경우 BK21 사업의 일부 정책 목표는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정부 차원의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2006년도 BK21 총 사업 예산은 2,900억 원이다.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만일 동 사업비를 신청할 때 사업운영비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운영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업운영비는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비와 기타 사업 유지를 위한 사업 관리유지 경비와 사업 목적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발전 경비로 나눌 수 있다. BK21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 사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단의 구성과 공정한 선정 평가와
기준, 모니터링 계획과 예산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운영비 확보,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경비도 사업운영비에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정확한 항목을 밝혀서 충분한 사업운영비를 확보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집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운영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아 주관부서가 고생은 하면서도 사업 효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기부나 타부처의 경

우 아예 사업 예산 속에 사업운영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킨 후 그 사업 운영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 집행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부의 젊은 과장들의 마음이 교육부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늘 비판만 받고,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수한 자원이 교육부를 떠난다면 이는 다시 교육부의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부가 정책개발부서라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 짧은 지면에 길게 할애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신청할 때 미국의 경우처럼 사업단에서 모니터링 계획과 예산까지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 모니터링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현행의

사후 평가 방식을 취할 경우 기 집행된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그만큼 국고를 낭비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남기와 김주후(2005)의 『국고지원 연구 사업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4.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보완 장치 마련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BK21 사업비를 신청하는 연구팀은 주요 사업 목표를 명시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주요 사업 목표에 포함되는 항목의 대부분은 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규모가 작아서 학자 층이 두텁질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교수들이 동 사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면 국가의 연구력은 역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신청한 고급인력이 사업 집행 및 관리업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속성상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만일 이 사업이 몇 안 되는 교수들마저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차라리 느긋하게 지켜봄만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Ⅳ. 맺는말

요즈음 읽고 있는 책 중에 여유당(與猶堂) 정약용 선생의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여지껏 여유당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노자(老子)의 말에 보니 “망설이기를(與)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겁내기를(猶)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한다.”라 했다. 대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자는 추위가 뼈마디를 쑤시니 매우 부득이하지 않으면 건너지 않는 법이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웃의 시선이 언제나 자기 가까이 있으니 비록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정약용, 2005: 87).

하고 싶지 않은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남들이 알까 꺼려지는 것을 모두 빼고 나면 무엇이 남나?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것, 하늘이나 사람에게 떳떳한 일이 남는다. 그것은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이, 뱃속까지 시린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약용, 2005: 89)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자가 뭔가 이루어 내려면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매진해야 한다. 만일 인문사회 분야 BK21 사업이 이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10년 혹은 20년 후 인문사회 분야 BK21 사업은 약팽소선(若烹小鮮: 작은 생선을 삶듯이, 그대로 두고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 - 노자 60장-)이라는 교훈을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 학자도 교육부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것’ 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해야 하리라. 대학교육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종합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6). 2단계 BK21 사업: 인문사회 분야 사업 공고(내부자료).
- 김병주·나민주·조규락(2005). BK21 사업 성과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김병주·이영(2005). 제1단계 BK21 사업의 종합평가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남기·김주후(2005). 국고지원 연구 사업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 교육부정책 연구보고서.

정약용. 박무영 역(2005). 뜬 세상의 아름다움. 서울: 태학사.

박남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교육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세계비교교육학회(WCCES) 부회장,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교육부주요업무평가위원, 교육청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전쟁론』, 『학급경영 마인더스』 등 8권의 저서가 있고 이외에도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